

생태의 품이 아닌 품 모건 품

안양 도시문화기획자 양성과정

최태규

그래-사실 살 때는 꼭 필요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나를 아낀다고 애쓰며 살고있다. 하지만 사리사욕이란
쉽사리 떨쳐낼 수 없는 것. 나는 법정스님처럼 살아갈 수 있
는 종류의 인간이 아니기에 나의 사나운 물욕과 적당히 얼
버무리며 뒤영켜 살아가고 있다.

덕분에 나의 물건 목록은 갖가지 잡동사니와 명품은 아니지
만 그 비슷한 것, 할인의 덫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사들인 것
등이 많지만 그 중에는 의외로 잘 산 물건도 있고 누구나 그
렇듯 후회와 어리석음으로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는 물건들
이 많이 있다.

그래 사실 살 때는 꼭 필요한 이유가 있었다.

생필품이 아니니 없어도 그만인 데도 굳이 돈까지 모아서
산 열정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번 프로젝트는 나의 사적인 물건들을 꺼내 보고 언제 무
슨 상황에서 왜 사게 되었는지? 무슨 목적과 물건안에 깃
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갖고는 싶어

꼭 필요한 건 아니었다. 없어도 그만이지만 있기를 바라던 물건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도 가지면 뿌듯했던 물건들.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이야 허공에 사라지지만, 물건은 남는 것. 그렇게 나는 물욕을 정당화한다.

갖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구체적인 구매금액과 목표설정, 할인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력과 구매전략 같은 수많은 프로세스를 거쳐 얻어 내고야 마는 집념이 필요하다.

그래도 물건을 소유하는 순간의 기쁨, 성취감, 보상심리 등이 주는 위안은 상당하다.

때로는 어떤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는 경우도 있다.

어느 서랍에서 불현듯 튀어나와 조심히 꺼내 볼 때 떠오르는 추억을 통해 기뻐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한 애증의 흔적들을 나는 계속 가지고 싶다.

내 욕망의 생김새

탐욕은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다.

결국 남은 탐욕의 증거들은 내가 단지 생존만을 위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한다.

나를 움직이는 것은 생존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욕망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구성하고, 나를 규정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나의 욕망을 들추는 일이다.

가지고 싶은 욕망, 물건을 소유함으로 되고 싶은 나, 온전히 소유하지 못한 나의 현재, 지금까지 모은 물건들이 만들어 낸 나의 모습, 그리고 모아온 물건들 중 보이고 싶은 것만 교묘히 꺼내 보이는 나는 물건을 통해 타인에게 연출된 모습을 보여준다.

나의 물건을 보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본모습이 아니라, 내 욕망의 생김새다.

즐거 본 드라마의 대사 중에 욕망의 생김새에 대해 묻는 장면이 있었다. 과연 어떤 상황이 되어야 본모습이 드러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보시라. 내 욕망의 얇팍한 표면을.

물건 선정 기준

1. 생필품이 아닐 것
2. 의식주를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닐 것.
3. 충동구매 계획구매 여부는 상관없음
4. 사연 있는 물건일 것.

활동개요

물건들의 목록정리

- 물건을 산 배경,내용 등이 담긴 카탈로그를 만들어 봅시다.
- 물건의 매력포인트, 좋은점 나쁜점,물건을 사고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정리해 봅시다.

만들어 쓰기

- 정성 모아 똥손도 금손으로! 생필품은 아니지만 있으면 좋은것 들을 직접 만들어 봅시다.

활동내용

5가지 물건들을 단편칼럼으로 정리하여 카페에 연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개의 물건들



물건과 나- 물질의 세계에서 사는 삶

우리는 물질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우리의 몸은 물질로 되어 있으며, 물질과 상호작용한다. 우리는 물질은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감정 영혼은 뇌안의 신경전달 물질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들이 이런 물질들의 상호작용에 장애가 생겨 일어난다. 우리는 물질이다. 우리는 지구 안에서 끝없이 순환한다.

나는 내가 가진 물건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 지 탐구했다. 내가 꺼낸 물건들은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물질인 나는 물건을 대상으로 상호작용한다. 이것은 상당히 이상한 일이다.

그리고 나는 그 물건들을 통해 내가 열망하고 바라던 것들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것은 먼 과거의 물건들을 통해 과거 사람들의 삶을 추측하는 것과 닮은 맥락이다.

나는 물건을 산다, 물건을 쓴다, 물건을 만들고 소비한다. 나는 물질의 세계에서 순환하는 존재다 내가 죽고, 어떤 형태로든 바스러지고,

물건과 나- 물질의 세계에서 사는 삶

나는 물건을 산다, 물건을 쓴다, 물건을 만들고 소비한다.
나는 물질의 세계에서 순환하는 존재다 내가 죽고, 어떤 형
태로든 바스러지고, 이 지구안에서 이 우주안에서 다른 물
질로 변화 할 것이다. 그것이 물건일 수 도, 생명체 일 수 도
있다.

순환하는 이 세계에서 부디 우리 모두 안녕히 다시 만나기
를 바란다.

활동비 운용내용

	비목	용도	금액(원)
1	체험활동 재료비	인센스만들기 교재재작비	85000
2	교통비	교통비	15000

감사합니다